장성군 식품로봇연구센터 유치 나선다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지원 GIST·유에이로보틱스 등과 연구지원센터 유치 업무협약

장성군이 풍부한 음식 자원과 기반시설을 바탕 으로 '푸드테크' (식품 기술) 산업을 선점하기 위 해 식품로봇연구지원센터 유치에 나선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23일 농림축산식품 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농식품부 공모는 '대체식품'과 '식품로봇' '업사이클링' (자원순환) 세 가지로 나뉜다. 장성 군은 식품로봇 부문에 도전장을 내민다.

푸드테크는 '식품'(푸드)과 '기술'(테크놀로 지)을 합친 말로, 식품 생산·유통·소비 모든 과정 에 정보기술(IT)·바이오 기술(BT)·로봇 등 첨단 기술이 결합한 신산업이다.

식품로봇 부문은 식재료에 맞춘 온도·습도 등 주방 환경을 조성해 다양한 식품로봇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연구시설에서는 배수·배기·전기 등 다양한 조리에 필요한 주방환경을 만들고, 레이저 추적을 통해 조리로봇의 위치·자세를 측정한다. 작업 정 밀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장비와 사물인터넷(IoT), 위치정보(GPS), 5세대 이동통신(5G) 등으로 서빙로봇의 동선을 관리한다. 재질로부터 첨가제 나 부산물 등이 식품에 얼마나 뿜어나오는가를 측 정하는 시험 장비도 핵심 시설이다.

장성군은 식품로봇연구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여러 기관·기업과 손을 맞잡기로 했다.

지난 20일에는 장성군청에서 전남도, 광주과학



장성군(군수 김한종·왼쪽 세 번째)과 전남도, 광주과학기술원,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 ㈜더본코리아, ㈜ 유에이로보틱스가 지난 20일 '국가 식품로봇연구지원센터' 장성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술원, 농협중앙회 장성군지부, ㈜더본코리아, ㈜유에이로보틱스와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농식품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장성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의 하나인 식품로봇연구 지원센터를 유치하면 3년간 105억원 사업비를 확 보할 수 있다. 장성군은 식품 생산, 유통 등의 과정 에 로봇을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로봇' 분야를 선택했다.

장성군과 힘을 합친 광주과학기술원(GIST·지 스트)과 ㈜유에이로보틱스는 미래 혁신성장을 이 끌어갈 연구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유에이로보틱스는 치과로봇, 협동로봇 구동

시스템 등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딥테크(기술혁 신)' 기업이다.

㈜더본코리아는 방송인이자 요리연구가인 백종 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이다. 오는 9월 더본외 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 개원을 앞두고 있다.

협약을 맺은 기관·기업들은 식품로봇연구지원 센터 장성 유치를 목표로 산업기반 조성과 연구를 함께 추진한다. 식품로봇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 한 기술 개발과 산업현장 적용에도 힘을 모은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비 흐름의 변화와 첨단기 술 발전으로 세계 푸드테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 다"며 "국가 식품로봇연구지원센터가 반드시 장성 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이병노 담양군수 산학협동대상 유관기관 대상

이병노〈사진〉 담양군수가 '20회 산학협동대상 시상식에서 유관기관 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21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

사단법인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은 지난 2005년 부터 해마다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한 유 공업체(기관)와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신소득작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기틀을 마련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유치 환경



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재 생사업 추진을 통해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정 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정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열정 의 결과"라며 "다 함께 행복한 자립형 경제도시 조 성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화순군 사평면 빨래방 개장…내달 정식 운영

화순 사평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빨래 방이 생겼다.

화순군은 최근 사평 빨래방 개장 기념행사를 열 었다고 22일 밝혔다.

개장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와 영산강유역환경

청, 사평면 주민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불 빨래 세탁 과정을 살펴보고 시

설 현황·운영 계획 등을 들었다. 화순 사평 빨래방은 '사평면 탄소중립 편의시설

구축 사업'의 하나로 이달 완공됐다. 이 사업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202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돼 추진됐다.

화순군은 이불 빨래 수거부터 세탁, 배달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이용 요금은 겨울 이불 1채당 1만원, 그 외 이불 은 5000원이다. 사평 면민들은 반값에 이용할 수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기초 수급자·차상위계 층은 무료다.

화순 사평 빨래방은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다음



화순군(군수 구복규·오른쪽 세 번째)이 최근 사평 빨래방 개장 기념행사를 마치고 주민들과 기념 촬 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달 말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5만원에 나주 빛가람공원서 텃밭 가꿔요

260구획 다음달 6일까지 분양

나주시가 빛가람공원텃밭 260구획을 다음달

6일까지 분양한다.

빛가람공원텃밭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아기자기한 텃밭을 분양받아 원 하는 작물을 심고 가꾸며 수확의 결실을 맛볼 수 있어 도시농부 가족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텃밭 분양 구획은 '빛가람공원 1텃밭' (빛 가람동 536번지) 170구획, '2텃밭'(빛가람동 831번지) 30구획, '3텃밭' (빛가람동 22-1번지) 60구획이다. 1구획 당 면적은 9.9㎡(약 3평) 내 외로 5만원에 분양한다.

분양 신청은 나주시민 이전기관 직원 누구나 가능하며 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다 음달 15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나주 빛가람공원텃밭 3평 가족놀이터.

자세한 문의는 나주시 농업진흥과 도시농업팀 (061-339-7451~4)으로 하면 된다.

조성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빛가람 공원텃밭을 통해 가족, 주민들간 소통과 치유 공 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수확의 기쁨도 누리고 건전한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제공〉

강진청자축제 기간 다양한 대회・행사

25일 물레경진·26일 학술심포지엄

강진군이 '52회 강진청자축제' (23일~3월3일) 기간 '2024 강진청자물레경진대회' (25일)과 '고 려청자박물관 25회 학술심포지엄' (26일) 등 다양 한 행사를 연다.

강진청자물레경진대회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 터 오후 4시까지 청자촌 에어돔 디지털 박물관 광 장에서 개최된다.

작가, 도자전공 재학생·대학원생, 고등학생 등 86명이 출전 자격을 얻었다.

이번 대회에는 여주 이천 강진 등 물레대장급들 과 전국도자기기능경기대회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참가 신 청에는 100명이 넘게 몰렸다.

입상자는 고려청자 실습 기회가 주어진다.

입상자 중 청자박물관 근무를 희망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특별 채용(계약 기간 1~2년 미만)되거 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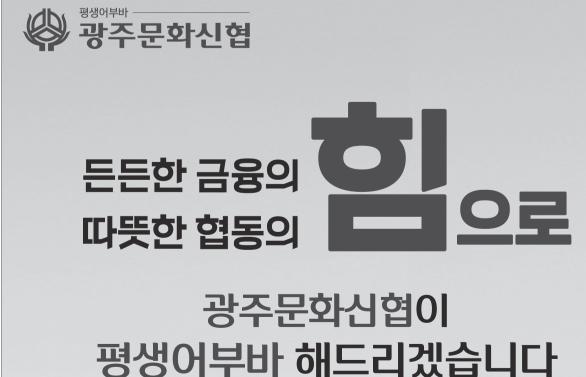
시상식에서는 추첨을 통해 '월간도예'에서 제공 하는 1년 구독권 3매와 '대원도예' 제공하는 도자 기 도구 10개 꾸러미도 전달한다.

26일에는 오후 2시에는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에 서 '전라병영성 발굴조사의 성과와 의의' 학술행 사가 열린다.

이 박물관에서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전라병 영성' 특별전(~3월10일)이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제 조선시대 병영의 운영 체 제와 방식, 발굴조사를 통해 본 유적의 현황과 출 토 유물의 가치를 규명하는 연구논문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학술대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 당일 누구나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